
2020년도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2020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목 차>

강민국	국회의원	4
고용진	국회의원	6
곽상도	국회의원	7
권철승	국회의원	8
김경만	국회의원	9
김미애	국회의원	10
김병주	국회의원	11
김상희	국회의원	12
김성원	국회의원	13
김승수	국회의원	14
김승원	국회의원	15
김영배	국회의원	16
김영주	국회의원	17
김예지	국회의원	18
김웅	국회의원	19
김정재	국회의원	21
김희재	국회의원	22
류성걸	국회의원	23
박대출	국회의원	24
박범계	국회의원	25
박완주	국회의원	26
박용진	국회의원	28
박찬대	국회의원	29
박홍근	국회의원	30
변재일	국회의원	31
서범수	국회의원	32
서영교	국회의원	34
송석준	국회의원	35
송언석	국회의원	36
신영대	국회의원	37
신원식	국회의원	39
신현영	국회의원	40
안규백	국회의원	41
양금희	국회의원	42
유경준	국회의원	44
유기홍	국회의원	45
유동수	국회의원	46
윤건영	국회의원	47
윤관석	국회의원	48
윤준병	국회의원	49

이광재 국회의원	51
이만희 국회의원	52
이명수 국회의원	53
이영 국회의원	54
이용빈 국회의원	55
이용우 국회의원	56
이원택 국회의원	57
이장섭 국회의원	58
이종성 국회의원	60
이철규 국회의원	61
이해식 국회의원	62
임오경 국회의원	63
임이자 국회의원	64
장철민 국회의원	65
전봉민 국회의원	66
전용기 국회의원	67
전주혜 국회의원	69
정경희 국회의원	70
정성호 국회의원	72
정운천 국회의원	73
정점식 국회의원	74
조명희 국회의원	75
조오섭 국회의원	76
조응천 국회의원	78
조태용 국회의원	79
천준호 국회의원	80
최기상 국회의원	82
최승재 국회의원	83
최혜영 국회의원	85
추경호 국회의원	86
하영제 국회의원	87
한기호 국회의원	88
한무경 국회의원	89
한준호 국회의원	90
황보승희 국회의원	91

강민국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국회의원 강민국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에게 시상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여해, 굉장히 영광이다. 독립적이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NGO단체에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 소중하다. 앞으로 강민국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국감’을 목표로 했다. 국민을 대신해 눈과 귀가 되어 광장과 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쟁보단 정책 질의에 방점을 찍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에 묻고, 아동과 청년,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챙긴 것이 그 예다. ‘라면 형제’,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최근 안타까운 사건들은 모두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구멍이 나면서 발생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의 75%가 가정방문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청년이 꿈꾸는 나라’는 없고, 2030 청년의 실업률, 자살률, 우울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실태도 함께 꼬집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삶은 챙기지 않고, 부정·부패에 얼룩져 있는 정부의 실상을 고발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인 국책연구기관 7곳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거나 불공정 채용을 했다는 문제와 더불어 수년간 지적된 표절·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문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부실하게 개최되는 정책연구협의회 건수를 근거로 정책기여도 제고 향상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옵티머스와 정권 연루 의혹이 밝혀진 것도 소정의 결과물이다.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

을 것이다. 아울러 4조 3천억이 넘는 손실을 낸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해,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약속받았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며,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백성이 배불러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정치는 삶에 급급한 국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보답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정부 정책의 실패와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국민민복상에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고용진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야당의 '조국 몰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국감·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지을 구실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정부 각 부처가 만든 정책, 진행한 사업, 사용한 예산이 바람직했는지를 점검하고 격려·비판하는, 1년에 한 번 뿐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DLF·D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초고위험 파생상품 은행 판매 제한 및 사모펀드 최소가입기준 정비 △DLF·DLS 사태 피해자에 대한 전액 배상 요구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신속 추진 △불편한 대환대출 절차 개선 △전두환 자택 공매 중단 관련 환수 노력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 약관의 부당성 지적 및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요구 △정비업체 순정부품 구매 강요, 가맹금 수취 등 한국지엠의 불공정행위 조사 요구 △네이버 자회사 유료서비스 검색 노출 갑질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매년 우수의원 선정,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게 늘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노원갑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3.

국회의원 고 용 진

곽상도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입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20대 국회를 거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평가받은 결과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특권과 특혜를 밝혀내고, 초유의 코로나 사태와 함께 발생한 돌봄 공백과 학습 공백에 대한 점검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국민의 힘'이 되고 '교육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수고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회의원 곽상도

권철승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철승 국회의원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방역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의 부실했던 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리민복상 수상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권철승

김경만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리민복상’을 수여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80만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화였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경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안들에 대해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한 제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과 같은 정책자료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왔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형평성에 맞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중소기업전용 요금제’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뿌리 기업에 대한 전력기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공정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상의 숭고한 뜻을 가בע이 여기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꼭 개선·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자는 정치의 목적을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른 정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민생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국회의원 김 미 애(부산 해운대구울)

김병주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주고 계신 법률소비자연맹과 의정활동 모니터와 평가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역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격려와 신뢰의 의미로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라는 큰 틀을 중점에 두고 임했습니다. 약 40여 년을 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상한 바 있어, 국방부에 포괄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에서 빠른 무기개발 속도를 보여준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도 완벽히 세워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을 대표해 피감기관별로 다양한 질의를 하고, 정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던 과정이었기에 보람찬 마음입니다. 예산과 정책 검토 등 여러 변화를 이끌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수여하는 ‘국리민복상’에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라는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멋진 나라로 만들고, 국민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회의원 김 병 주

김상희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관계자 일동과 국정감사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신 요원 및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습적으로 다가온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한민국 문명사의 대전환을 초래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보통 중립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역시 사람이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인 만큼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계와 방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향과 문제점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반성장하는 과학기술’이라는 큰 틀 아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4대 세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70가지의 국정감사 질의 아이템을 발굴했으며, 28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정감사 전반을 국민께 자세히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리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리민복상 수상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매진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힘이 되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단발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국회의원

2020년도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국정감사”라는 키워드로 열심히 국정감사를 임한 결과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리민복상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년 동안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해 온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회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입니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는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16개 상임위원회 전 과정을 총괄지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감춰진 모습을 밝혀내고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착실히 매진하였습니다.

또 거대 여당에 맞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 뜻 그대로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국리민복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서 잘해보라고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수상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각종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안녕하십니까.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끝나가는 가운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란 영예를 안겨주신 NGO 국정감사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기관 57곳 감사를 실시하며,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개선 경과를 살피며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리민복이라는 상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과 달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정감사 종합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및 국정감사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항상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구 북구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국회의원 김승수

김승원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소감에 앞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신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국민께 힘과 희망을 드리는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짚으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실운영과 부조리를 지적했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부실·방만 운영을 지적했던 ‘아트샵’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 끝에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2021년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자세히 살피며 엄중한 감시를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 앞으로 더 알찬 의정활동을 이어가라고 수여하신 상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께 힘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 운동 분야에서 전통의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첫 헌정대상(의정활동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국회 모니터링에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 피해, 나아가 디지털 사회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보안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써 행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개선과 함께 국정철학을 잘 녹여내고, 그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중의 기본인 https에 대한 정부 공공분야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향후 디지털 사회,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보안, 개인정보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그간 우리사회의 문제였던 유출 사고 등에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진흥과 보안, 보호가 함께 양 날개로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수상은 저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임하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 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 연맹의 활동에 항상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주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란 정부 부처의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을 지적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으로서 국회의원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 맞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외교·통일 분야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함으로서 정부가 보다 더 신중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이끌어 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는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더욱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국리민복상’ 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삼고,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라고 다짐한 기억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상이기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저는 정부의 각종 이념 편향적 정책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미비한 장애 예술인 지원대책의 문제점, 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담당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불공정한 채용과정,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술인고용보험의 문제점, 전국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 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문제점,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국민의 필요에 맞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메신저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국회의원

‘NGO 우수의원 선정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 웅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송파.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 예산안을 확정 지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상이 제가 잘해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들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19년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기관’ 항목에서 국회는 19.7%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정쟁과 비난이 헝치의 장인 국회를 잠식한 모습을 보면 통계 결과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치신 국민 여러분들께 국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여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가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의정활동은 말은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현재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 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튼튼한 고용안전망을 조성하는것이 국민의 일상을 개선함의 기본이라는 신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담댐을 비롯한 댐 방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실수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라는 점과 피해 주민을 배제하고 친정부인사로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

자의 고용안정 요구를 외면한 정부 정책의 총체적 정책난맥상을 지적, 산업 현장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재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감사권을 가지고 정부 기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국민이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고용·노동과 환경문제 현안을 점검할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함께 기록하고 모니터링 해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곁을 지키고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회의원 김 응

김정재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 활동하며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이 조직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라는 답을 정해놓고 경제성 평가등 결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권과 권력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에게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등 권력형 성범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임대차 3법, 23번의 뺨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재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소감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읍, 국토교통위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은 국민의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에게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듯 귀한 상까지 받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 영광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시선과 높은 관심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시고 고견을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안전’, ‘서민’,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민심을 대변하면서,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깊이 있게 접근하려 노력했습니다.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적과 비판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와 확실한 논리,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를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고, 그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초선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비점은 정책과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국회의원

소감문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모니터링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감사위원으로

- ▲文정부 임기 끝까지 ‘돈 펄펄 쓰겠다’ 선언한 재정준칙 문제
 - ▲국민 재산에 피해 입히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원 방지
 - ▲한국은행 목표에 ‘고용 안정’ 추가 필요성
 - ▲태양광 관련 사업 불법에는 유독 관대한 세정당국
 - ▲업무실수로 선량한 시민에게 어려움을 끼친 주택도시보증공사
- 등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민복 증진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간사위원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역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2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고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 수상소감을 마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회의원 류성걸 배상

박대출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진주시갑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6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국리민복상은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인만큼 매우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국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며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 및 법 제·개정 등은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믿고 지켜봐 주시는 진주시민들 덕분에 6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의원 박대출

박범계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2년 전통의 국감전문 모니터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부 개혁’, 그리고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 개선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선택적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오피터스 관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하여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직접 평가를 통해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상이 저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잘 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큰 뜻을 새겨듣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발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회의원 박 범 계

박완주 국회의원

수 상 소 감 문 (제 21대 국회 첫해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충남 천안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 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해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입니다. 특히,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의원을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하여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올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사업비의 상당 금액이 정부 부처사업비로 편성되어있어,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전국 공통의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을 올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세심하게 보듬었습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모든 업소가 개별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뉴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지원 법적근

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뉴딜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였습니다.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 목적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문제 제기로만 끝나지 않고 법과 예산,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보이스피싱 문제와 어르신 보행사고 문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전력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유심히 바라봐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시는 상을 8번째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실현과 민생경제를 보듬는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국회의원

수 상 소 감 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니터위원 분들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여 정밀하고 엄정한 평가를 해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욱 값집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험물질 관리 및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고, 현대자동차 결함이슈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을 불러 리콜과 무상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금융권 모피아 현황을 밝혀 한국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문제 지적, 삼성증권 위법행위 조사촉구,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한 토크플레이를 해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민생 현안들과 그 밖의 고질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감사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의미로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 임무의 시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전문가·실무자와의 간담회, 법안발의, 정책연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내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늘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소신과 열정을 지키며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먼저 시민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격려와 신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생과 정책도 놓치지 않으며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를 맡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내고, 정쟁을 촉발하는 질의보다는 국가적 교육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 교육위 소관 모든 기관 구성원과 국민의 공익제보를 받는 ‘2020 국정감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교육종사자 15,046명 중 3,112명의 답변을 받아 국감질의와 서면질의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고질적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의 주기적 실행, 수년간 교비와 지원금을 통해 국민 세금을 횡령했던 외국인학교의 부정 적발, 부실한 관리와 제출이 이뤄졌던 전국 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들의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분석과 제도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교육계에 산적한 모든 문제점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과 3,000여 건에 달하는 제보를 모두 파악해 반영하거나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발걸음을 옮겨 디뎠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앞으로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2020. 12. 17.(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시 중랑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올해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게되어 감격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8년 연속 우수국감 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를 좋은 평가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늘어나는 상의 수만큼 더 성실하고 더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다집니다. 오늘의 수상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삼겠습니다.

첫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둔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초로 파워 유튜버들의 탈세 현황을 제시하고 세원 관리 강화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현안과 밀접한 지역별 재난지원금 편차 해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질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후속 법안까지 꼼꼼히 챙기며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선도하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성과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감시로 오직 민생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도 힘든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곁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더욱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박홍근이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초선의 마음으로 언제나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를 멀리서나마 함께하며 고생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항상 아낌없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떠올리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조선의원의 패기로 국회에 입성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처음 수상했고, 올해로 어느덧 열 번째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예년처럼 수상식에 참석하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어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언제나 그렇듯 뒤돌아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이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2021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우리네 일상을 되찾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직접 인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에 감사드리며,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12.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재일

서범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당연한 것들이 제한되어 평년과 같은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2020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있는 정책국감이 이루어지도록 살피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21대 국회 첫 번째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설립한 기획사가 정부와 지자체 행사를 30건이나 체결하며 최소 19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음을 밝혀내었고, 경찰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전국의 경찰 187개 중대와 버스 537대를 동원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점을 지적하여 국민 여러분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인산성'이라고 불리는 차벽을 설치하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침해의 최소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감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올해 코로나19대비 마스크를 구입한 비용 약 2,520억원 중 약 82%, 2천억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을 밝혀내면서 지자체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원활한 6~8월에도 지방계약법을 현저히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64억원의 전별금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또한 울산시 북구, 울주군, 전남 진도군, 장흥군 등 4개 지자체가 3년에 한번 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따지며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 울산 남구의 고층 건축물이 대형 화재를 겪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하는 점을 밝혀내었고, 특히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

정하는 기준이나 선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으로 명시된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서 사명감을 가지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오늘 주신 국리민복상은 2020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응원해주신 울산 울주군의 지역주민 여러분께 돌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이번 국회 첫 국정감사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10월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도·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등 총 35개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심도있게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국정질의를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국감·정책국감·안전국감으로 우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의 활력을 이끌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앞으로도 여야간의 정쟁충돌 없이, 정책중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송석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 수상소감

□ 22년 전통의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의미있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저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체감 중심의 현장밀착형 국감을 수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토 분야에서는 수도권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값급 폭등 실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지원 상향사업의 실적 저조, 최근 증가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몰락,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D~E등급 시설물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코레일 역사 입점 매장과 청년매장 경영난, 공항버스 매출 급감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판스프링 사고 및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방지, 수소차량 내압용기 검사소 증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급원리에 기반한 부동산정책 대안제시로 국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송언석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곧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굳게 믿으며, 이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내실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서로 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3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통계 격차가 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통계의 표본을 검증하고 조사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영업부서장이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하여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춘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분양가 사업장의 로비를 받고 분양가를 올려준 사례가 적발되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태풍과 폭우의 피해가 잦았던 올해, 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으로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침수차 손실을 보전해 주는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대상 차량 3대 중 1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로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낱알이 파헤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국가와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신영대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2년 전통의 입법 감시 전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법치 민주국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애써오신 김대인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온라인 등으로 1천여 명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수상위원을 선정하였다는 데서 경이로움과 함께 선정된 데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과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필품까지 날개 판매하여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문제 등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위한 질의에 이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상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감 및 그린뉴딜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21대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과 많은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구인 군산과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할 현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은 칭찬보다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제게 주시는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감시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12.17

국회의원 신영대

신원식 국회의원

감사드립니다.

<국방위원회 신원식 의원 - 국민의 힘, 조선>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아마도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아직도 의정생활이 어색한 정치초년생입니다. 제게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잘하라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 안보의 최일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출신 국방위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무너진 안보분야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국방태세를 재건해야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군의 국방태세와 정신 전력의 약화를 초래한 9·19 군사합의, 약군(弱軍)지향의 국방개혁 2.0, 한미동맹을 종이호랑이로 변질시킨 연합훈련 축소 등을 집중추궁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직계 비속이 군복무 시절 ‘황제휴가’로 군 휴가제도를 농단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비를 가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군 역사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집중 발굴하기 위한 TF를 군사편찬연구소에 설치하여 1년간 운영한 전대미문의 정치중립위반 실태도 밝혀냈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보태세의 재건을 바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저의 이러한 충정과 진정성을 평가해주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고생한 보좌진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단 한 번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의식과 지적사항을 정책과 입법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게 주신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기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첫 다짐처럼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맘껏 활동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제게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신현영

안규백 국회의원

국정감사(21-1)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어느덧 연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세밑 한파에 두꺼운 외투와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사람들로 거리는 펍 분주했습니다. 반가운 사람과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다른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바람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19 사태 아래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는 상의 명칭이 점연쩍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는 상은 유독 뜻깊게 느껴집니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국정감사 기간의 의정활동을 시민께서 직접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활동한 국방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더욱더 뿌듯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한반도 평화의 추진과 국방개혁2.0, 그리고 인구절벽에의 대응 등 거시적인 담론에서부터 주거 여건 개선, 급여의 형평성 확보, 장병복지 등 우리 장병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까지 빠짐없이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수상을 동력 삼아 지적한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꼼꼼히 점검하며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에게 가야 할 시선을 나누어 가진 듯해 면구스럽습니다만, 항상 처음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이 진정한 국리민복(國利民福)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국회의원

[소감문]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를 모니터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명실상부하게 가장 전통있고 권위있는 상입니다.

올해도 불철주야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이념 논리에 사로잡혀 막무가내식 정책 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으로 정부 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지적, △보급에만 치우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사후지원 방안 마련, △중기부의 중국산 제로페이 QR리더기 보급 문제 지적 등 정부가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사후 관리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자보다 정권을 우선시하는 여가부를 지적, △조두순 출소 대책 및 성범죄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추구 등으로 여가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또다른 시작이자, 과정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을 개정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등 정부의 실정이 올바르게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를 견제하고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증인·참고인 불출석,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정감사였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기회를 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수의원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대구 복구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먼저 22년 동안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제21대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시고, 이와 함께 ‘국리민복상’이라는 뜻깊은 상까지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국정감사를 공정하고, 정밀하게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과 김대인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전문가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이런 큰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때 지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는 조세 문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며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유 경 준

유기홍 국회의원

<소감문>

20년이 넘는 동안 국민주권과 알권리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를 정착시킨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19대 국회 8년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교육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아 이끈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한차례의 파행도 없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교육위원장이기에 앞서 교육위 위원으로서 7권의 자료집과 보도자료, 서면질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미래교육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임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 기 홍

유동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부위원회 소속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저를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산하기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년 넘게 공익적 관점에서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번 수상은 저에게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로 온 국민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때 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부문을 다루는 동시에 생활 밀접형 민생문제관련 질의 하나하나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는 한 번의 파행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 민생을 우선한 국정감사를 위해 다함께 협조해주신 정무위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국회의원 유 동 수

윤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외교통일위원회) 입니다.

2020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으로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행정감사를 넘어서 국가와 미래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정책감사, 입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 보도용으로 국정감사를 지양하고자 했고, 정부 등 관계자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통일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할 수 있하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이유는 외교와 안보가 정쟁을 넘어서 우리 국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적을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적 관행 등 기존의 관례를 넘어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새롭게 접근하고자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새로운 외교통일 의정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K-방역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국회의원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수상 소감문

윤 관 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을 7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야 간 긴장을 낳을 수도 있는 예민한 주제들이 많았던 저희 정무위원회가 파행 없이 사실에 입각한 지적과 건설적인 정책 대안 중심으로 잘 마무리된 데 대해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무위원회가 지향하는 금융혁신·공정경제·민생안정·보훈선양과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은 앞으로도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 및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 및 개선되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NGO모니터단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먼저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과거 국민들의 질타 대상이었던 '호통국감', '막말과 말싸움 국감'이 아닌 '민생 정책 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목표로 노력했던 점이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인해 일용직과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처한 노동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매진했고, 죽음의 외주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환경오염 문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및 전국민고용보험,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분야 현안 과제와 홍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 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 불법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환경분야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도 펼쳤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기후,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므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자세로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먼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입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코로나19 시대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고민하였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 지정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사업손실금 준비금 제도 관련 법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가 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봅시다. 몸은 흩어져도 마음은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국회에서, 그리고 지역구인 원주에서 국민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광재

이만희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국정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해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3년 차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농어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영농활동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업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공익형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을 조명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간사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농어업이 국가와 국민의 관심 속에서 더는 홀대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 ‘돈 되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영천시민 그리고 청도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온 국민 여러분께서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이만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명수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으로 선정되어 너무나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해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는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개편되고 국회의원 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의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했으며, 지난 3년간의 문재인정부 정책 추진과 정부부처간의 상호연계를 따지며 실책을 평가하는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통해 각 부처 및 기관별 심층적인 문제 인식과 그에 따른 질의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안전·치안·소방·인사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가뜰이나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적 중대한 현안들과 갈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국민을 위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몸을 숙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이명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 국회의원

소감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영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과 가게 경제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라임, 옵티머스과 같은 잇따르는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평생을 모은 소중한 돈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한, 주말에 갑자기 출근했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어느 연구원의 억울한 죽음, 아들의 카카오톡을 믿고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사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가 보이스 피싱을 당한 부모님의 억울한 사연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기 위해 노력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네 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550조원이 넘는 2021년 예산안에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한 뉴딜은 없었습니다. 단순 일자리, 세금 알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정책금융기관에게 정권의 이념과 구호에 치우치는 투자가 아닌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당부하고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평가한 한 언론에서는 이영 의원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역대급 초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산자중기위나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에 등장한 이영 의원에게 대한 기대 보다 훨씬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촌철살인 질의에 대한 호평이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합니다’ 라는 사무실 한편의 슬로건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빈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상을 주신 이유는 소외된 국민과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고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민복리상) 수상소감문

<이용우 의원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선>

우선 저의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과분한 상을 만들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자본시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초고속 경제성장 이면에 자리한 시장의 불공정 또한 느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규제혁신, 공정거래 및 금융질서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몸소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감에서 다뤘던 KIKO문제와 관련하여 얼마 전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보상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그만 결실이 있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중견기업들이 법정관리 등 피해를 입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1년차에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잘 이어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혁신, 소비자보호, 공정한 시장,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회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눕니다”
국회의원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부족한 제가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상의 기쁨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울러 정밀한 평가로 우수의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니터위원들과 전문가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주말이면 지역 곳곳의 수해현장과 어업현장을 방문하였고, 농어민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보내준 벼 도복피해 영상, 저수지 산사태 사진, 해양오염 사진자료, 지역에 귀어·귀촌한 청년부부의 진솔한 이야기 등 의원실로 보내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자료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오늘 제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늘 고민하고, 지역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섭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라성같은 선배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 1천여 명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아주셨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역시나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흔들며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그리드 패리티의 촉진, 중·소상공인의 고통까지 급격히 변하는 경제지형에 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정감사 진행에도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이슈로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묻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디지털 혁신과 미래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응해 ‘국난극복’, ‘민생평화’, ‘미래전환’이라는 3대 핵심주제를 설정해 정책해법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한다는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기의 계통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수소로의 모빌리티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것에 반해, 충전소와 이동장비 등 부실한 인프라를 점검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성도 짚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활로 마련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모니터단과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을 살피 보완해 가겠습니다. 더욱 깊이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 질의한 부분들의 이행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격려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성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 우수위원(국리복민상)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상(償)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수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히 맞닿아 있기에 정쟁(政爭)보다는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정책 국감을 실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돌아보고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정책개선과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술함으로 인해 낭비되는 보험재정과 늘어나는 국민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부담을 낮추도록 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의 일탈과 비위를 알리고 부적정 장비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 지적하여 국민께 더 충실히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8.

국회의원 이 종 성

이철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문

20.12.18 이철규의원실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맞아 어수선했던 정치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와 관련하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세금으로 메꿔준 한전의 적자 등 탈원전 정책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홈쇼핑 대표의 자문위원 지인 채용 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적해 중기부 감사를 이끌어내고, △전통시장 청년몰 폐업문제 △전통시장 청년 일자리 사업 부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탁상 행정 문제 등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정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 감사합니다.

지난 2016, 2017, 2019년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재선의원으로서 더욱 깊이 국민과 민생을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여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보내주신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주민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좋은 의정활동을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소감>

먼저 힘든 시기에도 평가와 선정에 수고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임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안부에 지방정부와 소방공무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주문한 것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 되는 상황 속에서 전자발찌 착용을 감시하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밖에도 3선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문제 등을 짚으며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에 충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우수 국회의원 선정을 민생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되는 지속적으로 살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국회의원 이 해 식

임오경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임오경(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풍요롭게'라는 모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종국에는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리라 하는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불법과 불공정, 혈세 낭비 사례 및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원 직후부터 원내·외에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스포츠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껴왔던 부조리함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더욱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등 소관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해 주신 모니터위원, 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선정된 의제들은 향후 법안 심사와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오늘 수상하는 '국민복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선정하신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평가에 임해주신 모니터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해 주신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국회의 의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피감기관이 지적받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개선해 나가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신 모니터위원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평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저를 국리민복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장애인,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한 구조적 대책을 주문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노동형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치 지형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교로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부모들, 전기차 사용자들, 택배 물류창고 상하차 노동자 등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적 대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전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장철민

전봉민 국회의원

< 전봉민 국회의원 수상소감 >

먼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되는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쁩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좋은 평가를 받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납품과정에서 담합 의혹 및 허술한 백신유통 안전 체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조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예산 집행을 ▲건강보험 부채관리목표 등 재정건정성 문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노후준비지원사업 ▲저출산 및 혈액수급 대책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연일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조속한 국내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우선 과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으로 제가 겪었던 현실과 주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영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음악 저작권료 3만 4,948건, 총 10억 7천만 원을 환불 조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 문제의 경우,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신종 직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의 병역 문제를 지적하여, 대중문화예술 및 E-스포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이 대학(원) 생들처럼 현역 입대를 전제로 한 '입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시대적 요구인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논란에 휩싸여있던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이 친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증에 필요한 역사적 사료들을 발견하여 이를 문화재청에 전달한 바 있으며, 존치 여부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반영하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이후 드러난 체육계 현실을 파악하고 청문회 이후 후속 조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징계 문서를 만든 사실을 밝혀냈으며, 빠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재발하는 체육계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계약서 일체를 확인하여 '갑질 계약', '노예 계약' 이 만연한 문제를 조명했으며,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된 예산 및 국정 전반에 대한 밀도 높은 감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역량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했던 사안들이 관련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01217]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수상 소감문

국민의힘 전 주 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입니다.

먼저, 21대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성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민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활동 내용을 꼼꼼하게 모니터하며 평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국정감사는 판사로서의 법원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차별화된 국감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의 감시자’로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췄고, 문제인 정부의 국정 난맥과 실정을 제대로 알리며,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위원이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폭력 및 피해방지 대책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힘이 진실이 되는 사회가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위법, 부당한 부분을 더욱 끈질기게 파헤치고, 개선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수상소감문(정경희 의원 교육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함께 애쓰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해야 하기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한 것인데 이렇게 소중한 상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맞이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일부 교육의 위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좌편향 교과서문제, 공공의대 및 한전공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등원 후 지금까지 줄곧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서 파악한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는 국민여러분의 민의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 정부가 국민들의 뜻과 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의 교육위 활동이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소통의 가교가 되어, 이 정부의 교육 일방통행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

이고 국민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보고 달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는 자세로 항상 반듯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주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와중에 진행된 국정감사를 감시, 평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단과 평가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에도, 여야 간의 대립과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며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쟁보다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인 국정감시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등 관계자의 기여도 중요합니다.

언론사가 여야간 대립이나 특정 시기에 두드러진 정쟁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간다면 국정감사가 국정의 근본적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단체 역시 국정감사 진행이 정치쟁점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언론 보도 행태가 국정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국리민복상 수상에 감사드리고,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평가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하여 수여하는 국민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난 20대보다 한층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홀대 당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어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2% 수준인 4,118만원에 머물러 있고, 40세 이하 청년농가는 현재 단 6,800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반려인구가 1,500만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대책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말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온라인 마권발매를 도입해 위기상황을 타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세계 최초로 1,118억을 들여 선박용 e네비게이션의 보급 저조, 잔존유 확인 작업 중 발생한 기름유출·인명사고 사건에서 드러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경찰의 문제점, 항만공사들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지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자 개발 확대, 논아트 활성화 해외사업 추진, 플라스틱을 대체할 목재제품 활성화, 가정간편식의 확대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도 놓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대상기관을 질타하더라도, 그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어업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0-12-18]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빠빠하게 진행되는 감사일정에 호흡을 같이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농정실패를 지적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위한 지원 촉구하였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 수사를 벌인 해경을 규탄하며, ▲옵티머스 펀드의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또한, 낚싯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갈 수밖에 없는 ▲소외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과 ▲빈산소수피 피해 해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과 통영·고성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입니다. 값진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ICT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첫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도, 과학적 팩터와 데이터에 근거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해재난 대응에 위성정보 활용이 전혀 없다는 점, △위성정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점, △한국형 뉴딜 사업에 위치/공간정보 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1회용 그래픽데이터만 양산한다는 점,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블라인드채용 및 정규직전환 문제, △노벨과학상 수상 촉진과 R&D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지적하는 한편, 국제 협력네트워크 다변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과학기술담당관 해외파견 등을 촉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 원전 사고 시 대응 문제, △보안문서인 원전해체계획서가 방치된 점을 지적하고, △국내기술로 개발된 우라늄 정제공정 기술 사용허가를 촉구해 사용이 승인되는 효과적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부주도의 언론탄압용 팩트체크센터 사업 중단 촉구, △3차원 GIS 활용한 재난방송 고도화 주문, △KBS 나훈아 콘서트 해외 불법 유통 조치방안 마련, △KBS 국민 수신료 일방적 북한 송금 및 불공정계약 문제, △EBS 펑수를 벤치마킹한 공영방송의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분야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국민을 위한 빛나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조오섭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수상소감

<조오섭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2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노동자, 자영업, 대학생, 대학교수, 전문가, 시·구의원들 등 5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주에서 수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 서울, 광주에서 상시적인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들을 받아 피드백을 했습니다.

주거, 건축, 건설, 철도, 항공, 도로, 물류 등 담당 파트를 맡은 보좌진이 상시적으로 전화연락을 하며 비대면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소통과 공감, 개선의 장이 되는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크게 여섯가지의 원칙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가짜뉴스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처가 신뢰성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 만연한 불공정 문화를 공정하게 바꾸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갑을문화 퇴출 노력으로 우리사회의 불공정이 많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을 공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서 더 힘들어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준비하는 행정의 준비입니다. 코로나는 전 인류의 진화를 강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면돌파하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개선해나가야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정치,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문제제기와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5권의 정책자료집과 국정감사 카드뉴스 모음집,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그리고 1,200건이 넘는 언론보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지기 위해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응천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
원 조응천입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살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지적하고,
취약계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충실하게 모니터링 해주시고 높은 평가를 주신 국정
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로서 주거약자 보호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앞
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조응천

조태용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리민복상 수상을 계기로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봤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처음은 늘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설레임, 처음으로 치르는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처음으로 수상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의 무게감까지, 올해 제가 겪은 모든 처음은 낯설고 어렵지만 감동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실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반면 작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차곡차곡 시간과 함께 쌓아가겠습니다. 지난 밤에 조용히 내린 눈이 다음날 아침 풍경을 온통 하얗게 바꾸듯, 이렇게 모여진 작은 물결들이 훗날 진정한 국리민복에 큰 물줄기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제집 장만은커녕 전셋집도 구하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마저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국가안보는 사라졌고,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수상하게 된 국리민복상은 이런 눈물과 한숨을 멈춰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직 먼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내디딘 첫걸음에 큰 격려와 영예를 전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 묵묵히 쌓아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2020년 국정감사-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년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국감은 크게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이해충돌’사례를 고발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족회사의 피감기관 입찰실적을 전수조사하고, 그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두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나아가기 위한 6가지 정책제언을 국감장에서 발표했습니다. 크기, 품질, 입주자격, 소셜믹스, 공급방식, 재정의 개선을 국토부에 촉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세번째,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륜차 배달노동자 보험 미가입 문제, 코레일 특송노동자 사고위험, 산하기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경징계,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갑질, 임대주택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휴게환경 등 우리사회의 현안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와 관련하여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의 이용불편,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임산부 편의시설, 저상버스와 공항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천준호

최기상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최기상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2020. 12. 18.

저를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 후 첫 국정감사에서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피감기관을 향해 끊임없이 던진 질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도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이지만, 평범한 국민의 삶에서 더 절실한 문제는 수사 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헌법위반입니다.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군사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특히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준수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감시 및 비판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상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 하면서도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지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재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주시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이라는 큰 상의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을 더욱 잘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에게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권익운동에 몸 바치며 소상공인을 대변하고자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상공인 문제를 몸소 체험했기에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질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감기관과 증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호통을 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책에 멈추지 않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다짐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거나 공공기관장에게 질의를 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국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국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는 기본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세 번의 국감에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공정한 심사를 위해 NGO 모니터단이 보여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영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21대 첫 국회의 시간이자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21대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광스럽게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는 느낌과 함께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밤새 고생했던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이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인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모니터 해 가면서 수고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과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명성을 이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민생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대안제시에 주력했던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주요경제정책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지적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질의를 집중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경제실험’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분배까지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재탕 3탕인 사업들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허황된 주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회혁신에 집중해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될 때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닌, 각종 경제 통계와 정부 제출자료를 통해 입증된 문제지적이었기에 언론은 물론 여당도 주목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과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 대안 제시였다고 평가해 주셨기에 이렇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해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것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회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제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국회 국정감사 평가 중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지닌 상으로 정평이 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인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삼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간 저의 관선·민선 자치단체장과 농림수산 분야의 국정운영 등 다양한 공직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행정부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시책도입 추진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항상 믿고 성원해주시는 사천·남해·하동의 주민들 그리고 함께 노력한 보좌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가장 공신력 있고 권위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평도 공무원 피격 등 살얼음판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이 '안보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5대 국감 과제'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전력 및 방위력개선, △북핵·미사일 대응,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병무행정 및 장병복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원칙 없는 국방정책과 일방적인 국방개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해가 심각하고, 접경지역 피해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성실한 일꾼, 든든한 동반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한기호

한무경 국회의원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한 무 경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울러 15대 국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및 법률운동 등에 매진해온 전국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영광으로 생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에 더욱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엄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늘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正道(正道)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회의원 한 무 경

한준호 국회의원

수 상 소 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결심하면서 국민께 ‘필요한 정치’ ‘서비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국정감사가 이에 걸맞은 사회적 약자, 소비자, 국민 안전 중심의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통해 문제와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발로 뛰는 국정감사를 하고자 의원실 직원들과 동분서주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공익신고자의 가족을 면담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방송사 자회사의 직원, 계약직 근로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을 예방할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어달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모든 공을 제보자분들과 시민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끝까지 살펴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과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한 준 호

황보승희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치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 國利民福)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리민복상’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KBS 검언유착 오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밀집지역 이전 ▲공공기관장의 부하직원 폭행 ▲네이버 뉴스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여러 지적을 통해 행정부의 실정을 낱알이 파헤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정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산 중구영도구 주민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한 자세로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